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23.(월) 06:00 < 9.23.(월) 석간 > 배포 2024. 9. 20.(금)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실증 돌입

- 국내기술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적용한 실증선박 출항식 개최
- 향후 1년간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거쳐 국제표준 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9월 23일(월)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컨테이너선(포스 싱가포르호, 1,800TEU)의 출항식을 부산(자성대 부두)에서 개최했다.

그간 산업부와 해수부는 공동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5년, 사업비 1,603억원)해 왔다. 실증 선박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이하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선사인 '팬오션'이 제공한다. 사업단과 팬오션은 선박 설계 단계부터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해 준비해왔으며, 최근 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하였다.

'포스 싱가포르호'는 앞으로 1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항하며, 기상 및 해상 교통상황 등 안전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지능항해, 기관자동화, 사이버보안 및 운용기술 등 핵심 기술을 통합 실증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원팀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중인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실증 선박을 제공해 주신 선사에 감사드리며, 한국형 자율운항 시스템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해양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승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자율운항선박은 선박의 안전을 극대화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며, 향후 조선·기자재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범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홍길표 (044-203-4334)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책임자	팀 장	송준석 (044-200-6205)
		담당자	사무관	범상섭 (044-200-62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실증 선박 사진**

□ 포스 싱가포르호

